

01 교회소식

근본의 빛과 소리를 체험한 교육

영으로 온 영으로 더욱 신속히 변할 수 있는 기회, '2012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이 강원도 흥천 대명리조트에서 있었다.

02 생명의 말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는 평소애 구제와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선행 죽었을지라도 살아나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다.

03 기획특집

금식 기도의 위력

신속한 응답을 끌어 내리는 금식 기도, 기간 정하는 것부터 보호 식까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본다.

04 간증

말씀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재록 목사 메시지에 감동받은 린다 스미스 NRB 부회장 인터뷰와 시공 초월한 치료 역사를 전하는 몽골 발저리 선교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540호 2012년 7월 8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선하고 아름다운 영의 마음으로 세계를 향해!

2012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 주제 '영'(요 4:24)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주강사로 열린 '2012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은 성도들이 더욱 힘찬 영의 흐름을 타고 영으로 온 영으로 신속히 이루는 기폭제가 되었다. 한편, 교육장(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 다이아몬드 홀)에 나타난 형형색색 오로라 빛 형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영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했다.



가나안 시대를 앞두고 '2012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이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흥천 소재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에서 진행됐다.

주 강사로 선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7월 2일과 3일 저녁, 다이아몬드 홀(대강당)을 비롯해 소강당 9곳을 가득 메운 오천여 명의 일꾼 및 성도들에게 '영'(요 4:24)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의 지역장, 조장, 구역장 외에도 영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서울, 대전, 마산, 부산, 광주, 제주 등 국내는 물론,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케냐, 콩고,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태국 등 해외에서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첫째 날 교육에서 이 목사는 "영의 마음을 이루면 질병, 가난, 재앙과는 상관없이 건강하고 부요하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또한 주의 종들은 부흥을 이룰 수 있다."라고 화두를 열었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믿음의 반석에 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즉 혈기, 감정, 미움·시기·질투, 거짓과 속이는 마음, 판단, 변개함, 간음, 욕심·사심·탐심, 배신 9가지를 자신의 마음에서 버렸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교육에서는 선, 사랑, 믿음, 소망 등을 포함하는 영의 마음에 대해 육의 마음과 비교해 설명했다. 이 목사는 "육은 믿음을 내보인다 하면서 늘 육의 한계를 긋는다. 그러나 영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또 육은 상대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만 사랑이 가지지만 영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의 마음을 이룬 사람이 온 영의 마음을 이루기까지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영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이 땅에 태어나 쌓은 지식과 경험, 부모로부터 받은 기(氣)와 성품 등 육의 흔적을 변환시키

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사랑과 영의 지식, 온전한 선의 결여와 부족을 채우면 타고난 성정(性情)이라 할지라도 아름답게 변환되어 그 특징에 따라 하나님 도구로서 크게 사용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성정이 차분하고 섬세함으로 작용해 850인과의 대결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나타낸 엘리야, 집요하게 생각하고 궁구하는 성정이 장점으로 작용해 신약 14권을 집필한 사도 바울 등 믿음의 선진 5명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한편, 첫째 날 오후에는 이복님 만민기도원 원장의 인도로 '성령충만기도회'가 있었다. 가상으로 십자가를 지는 체험과 새 예루살렘 진주문을 통과하는 시간을 가지며 주님 사랑과 천국 소망이 넘쳤다.

둘째 날 오전에는 이희진 목사의 말씀 시간을 통해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점검하며, 영으로 이끌어 주시는 목자의 사랑과 희생을 마음 깊이 되새겼다.

이번 교육을 통해 사모함으로 참석한

일꾼들과 성도들이 기필코 영의 마음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세계를 향해,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36~40)

많은 사람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스테판 집사처럼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으며, 출회를 당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에 자유를 구속당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까지 소외를 당해야 했지요.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비다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항상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부들을 도우며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 위하여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비다는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러자 평소 이 여인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이라도 능히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지요. 마침 하나님 권능을 행하는 사도 베드로가 근처에 있음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올 것을 간청합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했을 때 모든 과부가 울며 다비다가 생전에 자신들을 위해 지어준 속옷과 겹옷을 내보였습니다. 이처럼 다비다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선행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다비다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선하게 살았는데 왜 병들어 죽었습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질병이 틈타지 않습니다(출 15:26).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무절제하게 사용하거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며 무리하게 몸을 쓰니 약해지고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비다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 주심으로 얼마나 구제와 선행을 기뻐하시는지 확연히 나타내 주셨지요.

2.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의 예

우리가 선을 행하는 방법에는 구제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선행이지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열심히 봉사함으로 선행을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선행은 주님의 몸 된 제단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도 성결케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요(고전 3:16~17).

이 외에도 교회에 차량을 헌물하면 성도들을 수송하는 일에 보탬이 되니 이는 결국 영혼 구원과 관련된 일입니다. 피아노나 강대상 등 성전에 필요한 각종 기물을 헌물하는 것도 하나님 성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행으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시 37:4).

3. 올바른 구제 방법

마태복음 6:3~4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구제는 동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움받는 사람조차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서 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10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했으니 구제는 될 수 있으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3:10에는 “...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신체적으로 건강하여 자립할 수 있는데도 게을러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여 하나님 뜻을 거스르다가 환난 가운데 빠진 사람을 도와주면 오히려 자신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제는 믿음을 가지고 역경을 헤쳐 나가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만나 자립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이나 일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 생활이 어려운 고아나 과부, 소년 소녀 가장 등을 먼저 살펴야 하지요. 그 후에 더욱 폭넓게 눈을 돌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선행과 구제는 축복

다비다는 많은 선행을 하되 변함없는 온전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사도행전 9:40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했습니다.

다비다는 평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기쁨이 되었기에 이러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모습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지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행을 쌓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기억하셨지요. 그리하여 그는 물론, 가족과 친구들까지 모두 성령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42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불쌍하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며 선행을 즐겨하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는 54세에 암으로 1년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남은 인생을 자선사업에 헌신하라고 권면했지요. 그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고, 그때마다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건강이 회복되어 98세까지 살 수 있었지요.

성경 인물 중 다비다라는 여제자도 평소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러한 행함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병들어 죽자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비다는 평소애 어떠한 행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였기에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1. 많은 선행과 구제로 다시 살아난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불리는 다비다는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살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들에게 큰 핍박이 가해지니 많은 성도가 사망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욥바에도 성도들이 정착하여 신앙의 한 중심지를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회적 상황으로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대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공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일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만 정기간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려면?

성경에 보면 금식 기도의 위력은 대단하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을 예비했고, 모세 선지자의 40일 금식은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 내리는 열매를 맺었다. 에스더는 3일 금식을 통해 자신과 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위기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대적을 멸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

이 밖에도 마지막 때의 비밀을 풀이 받기도 하고 하나님 심판을 면하기도 하는 등 금식과 더불어 목숨을 다해 기도하는 만큼 신속하게 응답을 끌어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봄으로 금식 기도의 위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금식 기간이 그 목적에 맞아야 한다

금식하는 기간은 목적에 따라 다르다. 하루 금식이 있는가 하면 3일, 5일, 길어야 7일 정도의 금식으로 족할 때가 있고, 아예 금식을 하지 않아도 불같이 기도하는 것만으로 족할 때도 있다(에 4:16, 왕상 18장). 21일, 40일 등 장기 금식은 주로 하나님 뜻과 섭리를 밝히 알기 위해, 또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한 큰 목적을 두고 하게 된다.

장기 금식은 임의로 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기간뿐 아니라 시기까지도 성령의 주관을 온전히 받아야 한다. 먼저 금식을 위해 기도를 쌓은 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정확히 주관을 받아 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권능을 받아 영혼 구원에 힘쓰고자 장기 금식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성결된 마음으로 능히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시 62:11)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버리고 성결을 이룬 사람에게 권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의 종이 장기 금식을 하려면 질서를 좇아 교회와 상의한 후 결정해야 한다. 그 기간에 말씀과 기도예 전무하려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금식의 목적과 기간, 시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점검받아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영육 간의 모든 분야에서 합당한 금식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신속히 응답하신다.

2. 진리에 합당한 목적으로 해야 한다

야고보서 4:2-3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나” 말씀한 대로 금식을 하면서 비진리의 마음으로 구한다면 응답받을 수 없다.

만일 물질 축복을 원한다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제하며 선교하기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자기 유익을 위해 욕심으로 구한다면 아무리 금식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으며, 은사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깨끗한 마음 그릇이 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해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금식할 때에는 진리에 합당한 목적으로 해야 한다.

3. 하나님과의 담이 없어야 한다

만일 하나님과의 담이 있다면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다.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금식한다면 질병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유를 찾아 철저히 돌이켜 회개한 후, 금식 기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4. 반드시 불같은 기도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금식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의 향이므로 불같은 기도를 올려야 한다. 장기 금식을 하는 경우, 미리 기도를 충분히 쌓아야 하며 금식 중에는 하루에 다섯 시간 이상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교회와 목자를 위해 기도할 때 강건함과 능력을 받아 승리할 수 있다.

5. 금식 기간 중 근신해야 한다

금식 기간 중에는 텔레비전을 보는 등 세상 오락을 취하거나 형제를 판단 정죄하거나 농담이나 무익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과 다투고 누군가에게 해를 가한다면 그 금식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사 58:3-5).

일반적으로 일상의 가사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금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 금식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몸에 무리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있지만 온전히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며 근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 그 은혜를 구하는 지극히 겸비한 행함이다. 따라서 마음과 뜻, 힘과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한다.

6. 보호식을 잘해야 한다

장기 금식을 하고 나면 기가 빠져서 모든 기관이 매우 약해지고 저항력이 떨어진다. 일시적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흐려지기도 한다. 따라서 금식 후에는 신속히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식을 잘해야 한다.

금식을 잘했다 해도 보호식을 잘하지 못하면 몸에 이상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특히 40일 금식을 마치고 보호식을 하는 기간 중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므로 보호식을 잘하는 것은 물론, 무리하게 몸을 움직이거나 과한 일을 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보호식도 잘할 수 있도록 절제의 능력을 주시며 신속하게 기운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또한 금식을 통해 몸 안의 나쁜 독소를 배출하고 보호식을 통해 몸에 좋은 것으로 공급받으니 오히려 몸이 윤택해질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기도의 열매가 확실히 나타난다. 혹여 그 즉시 나타나지 않았다 해도 마음에 응답의 확신이 주어지며 때가 되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난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 프로그램 July GCN Programming Guide

<p>“알알이 익어가는 포도처럼 우리의 믿음도 탐스럽게...” GCN이 준비한 충만한 프로그램으로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를 시원하게 보내세요!</p> <p>24시간 연중무휴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및 A/S 문의 1577-2073</p>	<p>이재목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십계명 9-10 - 천국 45-49 - 생명의 씨 1-3 - 위로부터 난 지혜 1-4 	<p>GCN TV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수진 목사의 '육과영 6-9' - 정구영 목사의 '십자가의 도 7-10' - 이미영 목사의 '진솔히, 다산속히 다산속히' - 이미경 목사의 '내가 없는 마음' 	<p>찬양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CN파워플레이즈(2) 12-17 <p>GCN 특선명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퀘바디스 1,2부
---	---	---	---

“이재록 목사님의 메시지는 매우 성경적입니다”

린다 스미스 박사 (NRB 부회장)

‘2012 NRB(세계기독교방송인협회) 총회 및 박람회’ 행사 중 GCN(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 방송 부스를 찾은 NRB 부회장 린다 스미스 박사와 김진홍 국장이 만나 인터뷰한 내용 일부를 요약 게재한다.

김진홍: NRB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린다 스미스: 미국에서는 1944년에 복음주의 기독교 방송인들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복음전파를 위한 방송시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NRB가 설립됐죠. 문화적으로 미국에서는 복음을 전할 자유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NRB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의 진리와 언론 자유를 지향하고, 기독교방송의 우수성을 촉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김진홍: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박사님께 어떤 분이신가요?

린다 스미스: 저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자 저의 전부입니다. 저는 주님께 대한 사랑을 예배, 기도, 금식, 성경 읽기로 표현합니다. 또한 양로원 봉사 등 곳곳에서 섬김의 삶으로 표현하지요. 빈손이 될지라도 좋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진홍: 전 세계에는 많은 주의 종이 있는데 특히 GCN 방송 이사장이신 이재록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린다 스미스: 오늘날 많은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흐려서 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들 듣기 좋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만 하고,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록 목사님께서서는 두 가지 다 증거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 신

앙에 중점을 두고 주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말씀하시지요.

김진홍: 어떻게 이재록 목사님에 대해 알게 되셨나요?

린다 스미스: 저는 GCN 방송 웹사이트에서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에 대해 알고 싶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요.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싶었고 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선교지 ‘만민뉴스’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지요. 특히 이 목사님 저서 『십자가의 도』를 읽었는데 그 내용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 목사님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깨우칩니다. 또한 하나님 뜻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주지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신앙에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역사만 봐도 30년 전에 13명으로 개척해 오늘날 세계적인 대형교회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재록 목사님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높이신 것이지요. 12년 전에 설립된 GCN 방송 또한 그렇고요.

김진홍: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린다 스미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잠깐의 시간이며, 이 땅은 앞으로 올 내세를 준비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할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니 아들의 화상 입은 손이 말끔해졌습니다”

발저릭 푸룬 선교사 (몽골만민교회)

2012년 6월 8일 오후, 26개월 된 아들(발이트겔)이 난로 위에 끓고 있는 국물에 왼손을 넣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들은 2도 화상을 입었고 너무 고통스러워 자지러졌지요. 이때 아내(절자야)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바닷가의 잔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한 권능의 ‘무안단물’(출 15:25)을 화상 부위에 발라 주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주었습니다.

이내 화기가 물러가고 아들은 물건을 만지며 예전처럼 잘 놀고 잘 잤지요. 그런데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손이 퉁퉁 부어오르고 진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당회장님 기도를 받으면 세상 방법을 동원하는 것보다 빨리 치료되고 온전해지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믿음으로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했지요.

아들의 사고를 통해 저희 부부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일들을 두루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GCN 방송을 통해 서울 만민중앙교회 주일예배를 함께 드린 후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기도를 받은 후 아들은 진물이 마르고 딱지가 앉더니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신속히 치료받은 것을 보면서 몽골만민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병원을 의지하지 않았는데도 전혀 흉터 없이 말끔히 치료된 것을 보고 은혜와 성령으로 찬탄해졌지요. 만일 세상 방법을 동원했다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덧나서 고생했을 텐데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맡김으로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 드립니다.



전 세계 각계각층의 명사들이 자신의 간증과 비전을 나누는 GCN 방송 인기 프로그램 ‘크리스천투데이’에 출연한 린다 스미스 박사(왼쪽)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8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각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령만민교회 충북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사거리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3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성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영로 281번지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미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진주만민교회 전북 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강원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